

옥수수를 비롯한 곡물시세는 안정세유지 반면 수수시세는 강세전망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 미산옥수수 가격경쟁력 확보

미산 옥수수시세가 좀처럼 약세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선임시세가 강세를 보이면서 다소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1월 23일 현재 2월 선적기준의 미산 옥수수시세가 C&F 톤당 86~88불선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고 4~5월 선적분은 거의 88~90불선에서 시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미산 옥수수시세가 대체로 저가권에 머물고 있는데 반해 중공산 및 태국산 옥수수시세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즉 1월 21일 사료협회 입찰결과에 따르면 2월 선적기준의 중공산 옥수수가 C&F 톤당 88불선에서 미산 옥수수시세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태국산 옥수수시세는 95불대의 높은선에서 가격이 제시되고 있다.

이같이 중공산 및 태국산 옥수수가 가격경쟁력을 상실함에 따라 최근의 옥수수 구매물량은 거의 대부분 미산옥수수에 집중되고 있다. 미산 옥수수의 구매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미산 옥수수의 품질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가고 있는데, 최근 한국사료협회에서는 미산 옥수수의 품질저하와 관련하여 미국 사료곡물협회측에 보다 좋은

품질의 옥수수를 수출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미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는 이에 대한 개선노력을 사료협회측에 약속하였고, 미국측에서도 미산옥수수 품질개선을 위해 새로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미산옥수수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미산 옥수수 품질규격 기준이 되고 있는 BCFM(손상률, 이물질)으로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US No 3 Yellow Corn의 규격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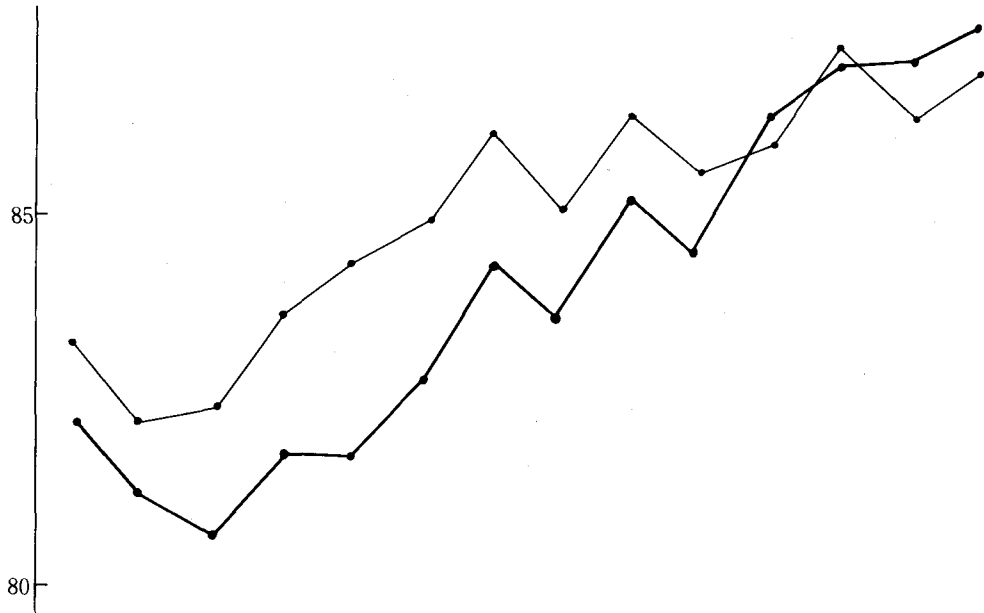
◎ 주요 교역국 수급동향

87년 1월현재 주요 옥수수 생산국 및 교역대상국들의 옥수수 수급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즉 세계제일의 옥수수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의 금년도 옥수수 생산량은 2억 890만톤으로 약 7.2%나 감소하였음에도 기초재고는 2.4배나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급사정은 크게 호전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옥수수 수출물량은 2,860만톤 규모로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이며 이로 인해 금년도 기말재고는 1.4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 옥수수 시세동향

단위 : US\$/MT



(1)월	2	5	6	7	8	9	12	13	14	15	16	19	20	21
PNW	83.32	82.24	82.44	83.81	84.50	85.09	86.37	85.27	86.67	85.88	86.18	87.55	86.67	87.16
Gulf	82.20	81.12	80.52	81.91	81.81	82.82	84.47	83.60	85.37	84.58	86.45	87.44	87.34	87.83

또한 금년 2~3월에 수확기에 들어가는 남아공의 옥수수 수급사정을 보면 지난해의 한발피해로 인해 기초재고는 감소하였으나 생산이 9백만톤 규모로 지난해의 8백만톤에 비해 12.5%가량 증가되고 이로 인해 수출도 13.6%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농산물 주요수출국인 태국의 금년도 옥수수 수급사정은 크게 악화되었다. 즉 기초재고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금년도 생산량이 약 410만톤으로 지난해의 520만톤에 비해 22%가량 감소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태국의 옥수수 수급사정 악화로 인해 최근 태국산 옥수수의 수출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산 옥수수에 대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그리고 중공산 옥수수 역시 비교적 강세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금년도 수출물량 증 상당량이 이미 일본과 장기공급계약으로 체결되었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만 수출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공내에서도 남부지역에서 가축용 사료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물량에 대해서도 태국에서 수입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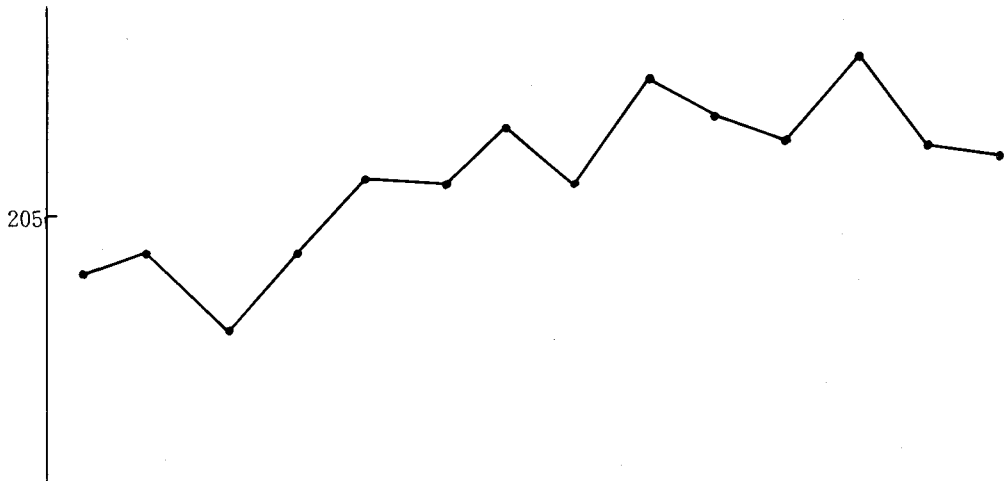
한편, 주요 수입국인 소련의 금년도 옥수수 생산량은 1,240만톤으로 지난해의 1,440만톤에 비해 14%감소하였으나 다른 조곡생산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도 소련의 옥수수 수입량은 약 510만톤으로 지난해의 1,040만톤의 절반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 향후 국제곡물시장 전망

향후 옥수수를 비롯한 주요 곡물시세는 미국과 EC지역의 곡물전쟁, 소련의 풍작 등으로 인해 공급과잉속에 당분간 안정세를 지속해 나갈 전망이다. 그러나 금년 2월부터 본격화될 미산 옥수수의

2. 대두 시세동향

단위 : US \$ / MT



(1)월	2	5	6	7	8	9	12	13	14	15	16	19	20	21
C&F 가격	204.48	204.76	203.66	204.85	205.86	205.77	206.50	205.86	207.24	206.87	206.41	207.61	206.32	206.14

식부결정과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EC 등 세계 5대 곡물수출국들의 회의 결과 등에 따라 다소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미국은 세계 국제곡물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지지정책을 철회하고, 저가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나 최근 미산 옥수수의 재고가 급증하고, 수출이 감소되고, 농가 수익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저가전략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지가 의문이다. 미국은 지난 1983년 미산 옥수수가격을 부추기기 위해 PIK Program(현물 보상제도)를 채택한 바 있고 이로 인해 83~84년의 옥수수시세가 크게 급등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국제 곡물시장에서 곡물시세를 강제로 끌어가고 있는 주요 요인중 원유가격의 회복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한때 한자 숫자를 목전에 두었던 원유시세가 년초부터 OPEC(석유수출국회의)의 감산합의에 영향을 받아 북해산 브렌트유가 배럴당 19달러선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달말에는 국제유가가 20달러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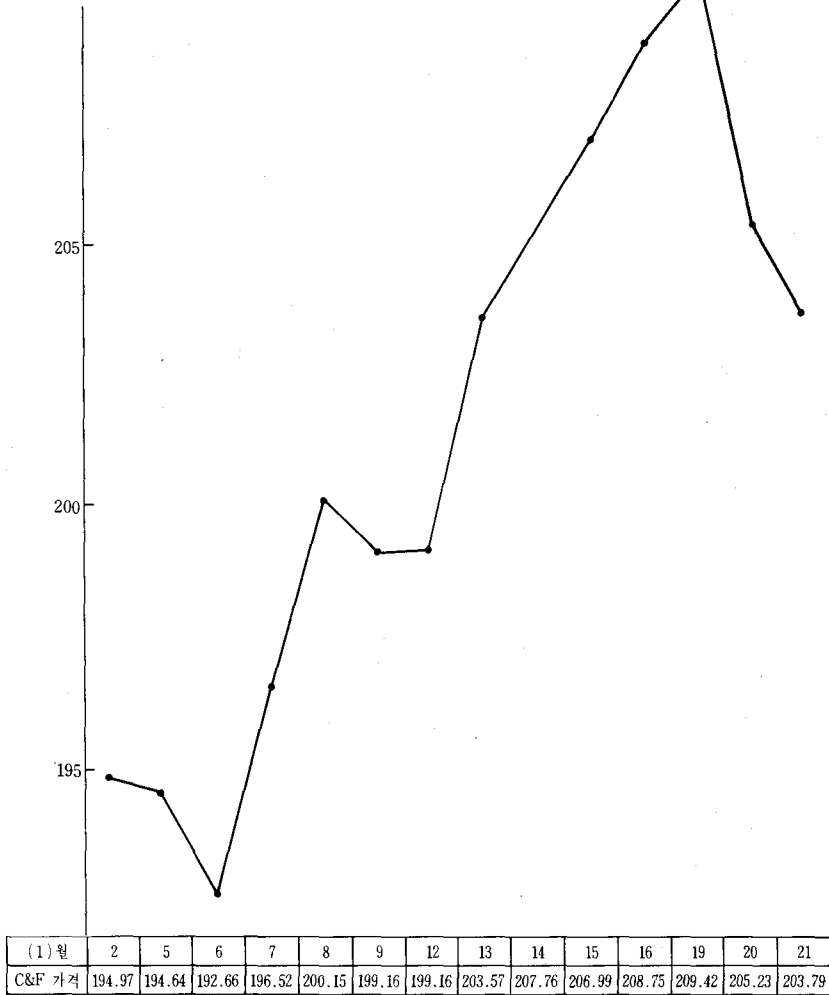
이같은 유가강세로 인해 선입시황이 상승기조에 있으며 미국 동해안(Gulf)의 물동량증가로 인해 한때 13불대까지 떨어졌던 걸프선임이 17불대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배합사료 원료가격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향후 배합사료가격은 비교적 낙관적이다. 왜냐하면 국제금리의 하락과 함께 국내 원화절상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화절상이 이루어질 경우 수출산업은 크게 위축을 받게 되지만 원료를 수입해다 내수시장에 제품을 파는 사료산업은 원가하락 효과를 보게 된다. 이때문에 소폭의 국제곡물시세 상승은 원화절감효과로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캐나다, 호주, EC 등의 사료용소맥들이 계속적으로 수출경쟁을 유지해 나갈 경우 미산옥수수시세의 급등은 어느정도 견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료용 소맥시세는 C&F 톤당 73불수준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사료용소맥의 구매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금년도 사료용 소맥시장은 캐나다의 소맥생산량 급증과 Damaged Wheat의 발생으로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일 전망

3. 대두박 시세동향

단위 : US \$ /MT



이다. 그러나 수수의 경우는 공급부족 등으로 인해 강세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식물성 박류와 강피류 시세도 전반적인 곡류시세의 하락에 힘입어 안정세가 지속되어 나갈 전망이다.

이물든 향후 국제곡물시세는 지난해 11월 이후 다소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여러가지 경제여건과 국제곡물 수급동향을 감안할 때 안정세가 지속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